

# 윤치호 영어 일기와 영어 쓰기 교육

## Yun Chi-ho's English Diary and English Writing Education

서민원

한국교원대학교

Min-Won Seo(neogen2@naver.com)

### 요약

본 연구는 54년간 영어로 일기를 작성한 윤치호의 영어 일기 중 영어 모국어 환경에서 작성한 초기 13개월과 후기 10개월의 일기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가 초기에 영어로 쓴 일기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영어 모국어 환경에서 작성한 일기 중 574편을 코퍼스 구성하여 전산 언어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질적 분석을 위해서 57편의 일기를 선정하여 각 일기에서 발췌한 문장의 내용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양적인 분석의 결과 초기의 일기에 비하여 후기의 일기에서 사용된 단어 수와 평균 문장 길이가 증가하였다. 또한 통사적 복잡도와 참조적 응집성이 증가하였다. 일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후기의 일기에서 언어 형식상의 개선이 드러났으며, 종교(기독교), 일상생활, 학업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작성한 것이 나타났다. 자신의 영어 학습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내용은 초기의 일기에 많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꾸준한 영어 일기와 편지의 작성이 영어 글쓰기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중심어 : | 윤치호일기 | 어휘 | 이독성 | 코퍼스 | 코메트릭스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Yun Chi-ho's English Diary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 corpus of 574 diary texts is created from his first and last years in an English speaking environment, and analyzed by two language analysis programs, RANGE and Coh-Metrix. His later diaries have more words in total, and longer average sentence length than his earlier diaries. Also, the Coh-Metrix indices in syntactic complexity and referential cohesion are higher in his later diaries. A qualitative analysis of 57 diary texts shows some improvement in his use of language forms. The most frequent topics of his journals are Christianity, everyday life, politics of Korea and his English studies. His constant effort to keep his journal and correspondence with foreigners, almost all in English, is estimated as one of the key factors for his successful English acquisition.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EFL writing courses are discussed.

■ keyword : | Yun Chi-ho's Diary | Vocabulary | Readability | Corpus | Coh-Metrix |

## I.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방식과 매체도 계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우편물, 텔렉스, 전화 통화의 75% 이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어[1]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영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에게 쉽게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영어 글쓰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도 영어의 4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 따라서 영어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어 글쓰기 교수·학습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윤치호는 17세이던 1881년 처음 일본에 건너가 1882년에 네덜란드 영사관의 서기에게 4개월간 영어를 배웠고, 1883년 4월에 귀국하여 그해 5월에는 주한 미국 공사의 통역으로 발탁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 실패 이후 상해에 망명하여 체계적인 근대교육을 받았으며 많은 기독교서적을 접하고 기독교도가 되었다. 24세였던 188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밴더빌트(Vanderbilt)대학에서 2년간, 에모리(Emory)대학에서 2년간 수학했다. 그는 현재의 기준으로 보아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 학습자로서 영어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평가받는 인물로[3] 그가 작성한 영어 일기 분석을 통하여 그가 사용한 영어 문장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의 영어 학습 방법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좌옹 윤치호의 영어 일기를 우리말 번역을 포함한 병렬 코퍼스로 구성하여 전산 언어학적 방법으로 평가·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의 쓰기 능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모국어 환경에서의 전기와 후기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가 미국 유학 기간에 작성한 영어 일기를 분석함으로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은 학습자가 충분히 영어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학습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윤치호 영어 일기가 현재의 영어 교수·학습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코퍼스 언어학

코퍼스는 넓은 의미로 어떠한 종류의 텍스트들이든지, 문어든 구어든 상관없이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언어학 분야에서는 코퍼스를 텍스트의 무조건적인 집합으로 보기보다 좀 더 좁은 의미로, 언어 연구를 위해 모아 놓은 어느 정도 의도된 텍스트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4].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대용량의 언어 정보를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에 힘입어, 오늘날 현대 언어학에서는 언어 연구를 위하여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전산화된 텍스트들의 집합으로 코퍼스를 구성하여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코퍼스는 크게 한 가지의 언어로 구성된 ‘단일어 코퍼스’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구성된 ‘다국어 코퍼스’로 나뉜다. 단일어 코퍼스는 해당 코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한 언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되며, 다국어 코퍼스는 주로 둘 이상의 언어의 대조 연구를 목적으로 구축된다. 다국어 코퍼스는 [그림 1]과 같이 비교 코퍼스(comparable corpus)와 번역 코퍼스(translation corpus) 또는 병렬 코퍼스(parallel corpus)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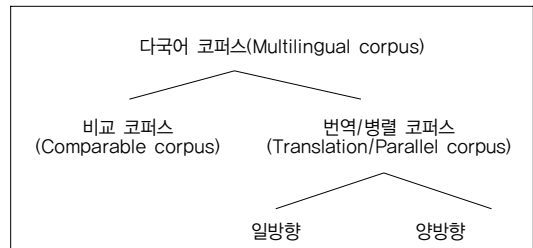


그림 1. 다국어 코퍼스 유형 분류 [5]

언어 연구에서 전통적인 대조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는 묘사(description), 병렬(juxtaposition), 비교

(comparison)의 세 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6]. 묘사는 비교 대상이 될 어휘를 선정하고 그 어휘가 갖는 특성에 대해 먼저 기술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인 병렬에서는 언어 간에 서로 대응되는 어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전통적인 대조 연구에서 이러한 과정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직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비교에서 연구자는 서로 대응되는 항목들의 대응 정도와 그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병렬 코퍼스를 이용하기 이전까지의 대조 연구가 연구자의 이중 언어 능력 또는 이중 언어사전이 제공하는 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대조 연구는 병렬 코퍼스의 등장으로 언어 간의 대응을 찾는 과정이 좀 더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병렬 발췌치는 언어 간 대응에 의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풍부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러한 정보는 여러 번역자들에 의해 실제 번역 상황에서 검증되고 사용된 것들이라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윤치호 일기에서 발췌한 주요 일기 영어 원문과 국역본을 단락으로 정렬한 병렬 코퍼스로 구성하여 문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 2. 코메트릭스

코메트릭스(Coh-Metrix)는 미국 멤피스대학교(University of Memphis) 지능형시스템연구소(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에서 개발한 언어분석 시스템이다[8]. 특정 텍스트의 언어적, 담화적 표상의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그 텍스트의 응집성과 일관성을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원래 컴퓨터에 설치하여 600여개의 언어학적 측정치를 제공하는 데스크탑용 프로그램이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9]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웹상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6개의 측정치를 제공한다.<sup>1</sup> 이들 측정치들은 다시 기초 산출치(descriptive), 텍스트 용이성 요인 지수(text easability principal component scores), 지시적 응집성(referential cohesion),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어휘 다양성(lexical diversity), 접속사 정보(connectives), 상황 모델(situation model), 통사적 복잡도(syntactic complexity), 통사 구조 밀도(syntactic pattern density), 단어 정보(word information), 이독성(readability)의 열 한가지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코메트릭스는 위와 같이 다양한 언어적 측정치들을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제공하므로, 최근에 교과서와 같은 교수·학습용 읽기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의 도구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8][10].

## 3. 선행연구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영어 일기 쓰기가 영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으며, 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학교 및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조아진(2007)은 중학교 1, 2학년 학생 8명을 대상으로 3개월에 걸쳐 영어 일기 쓰기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인 381편의 영어 일기를 분석하여 일기 쓰기를 통한 영어 어휘 학습의 가능성이 충분하며 정의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1]. 오지현(2008)은 초등학교 6학년생 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주간 영어 그림일기 쓰기 활동을 실시하여 영어 쓰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12], 권나나(2010)는 초등학교 6학년생 2개반 65명을 대상으로 4주간 영어로 문자일기 혹은 그림일기 쓰기 활동을 실시하여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13].

박정례(2008)는 장기간의 영어일기 자료 분석을 위하여 54년간의 윤치호의 영어일기 전체의 분량 중 3개월 간격의 일기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할지라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쓰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3]. Nam(2013)은 영어 관련 전공 대학생 학습자 111명을 대상으로 주장하는 글쓰기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코퍼스로 구성하여 이를 원어민의 글쓰기 코퍼스와 비교한 결과 특정한 어휘나 언어가 과도하게 많이 사용되거나 적게 사용된 것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내용이 영어 교수·학습에 반영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14].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논

1 매뉴얼에는 1번에서 108번까지 총 108개의 측정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실행했을 때는 38번과 39번의 'Anaphor overlap' 관련 지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문을 볼 때 영어 일기 쓰기를 영어 교수·학습 과정에 도입하여 영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I. 연구 방법

영어 모국어 환경에서 작성된 윤치호의 영어 일기 중 574편을 텍스트의 어휘 분석 프로그램인 RANGE와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Coh-matri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57편의 일기를 선정하여 언어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생활했던 약 4년간 작성한 윤치호의 영어 일기 989편 중에서 최초 1년 1개월간의 일기 382편(1889년 12월 7일부터 1890년 12월 31일까지)과 영어 사용국을 떠나는 해에 작성한 영어 일기 192편(1893년 1월 1일부터 1893년 10월 16일까지), 총 574편을 비교·분석하였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작성된 윤치호 영어 일기의 기간별 편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영어 모국어 환경에서 작성된 영어일기의 수

월 \ 연	1889	1890	1891	1892	1893	평균
1월		31	31	11	17	22.50
2월		27	28	8	18	20.25
3월		28	31	8	14	20.25
4월		27	30	12	17	21.50
5월		31	31	14	21	24.25
6월		30	29	24	24	26.75
7월		30	12	31	31	26.00
8월		31	0	20	28	19.75
9월		30	1	12	16	14.75
10월		31	9	17	6	15.75
11월		30	8	21		19.67
12월	25	31	13	15		21.00
계	25	357	223	193	192	21.04
분석대상 (계 574)	25	357			192	

각 일기의 텍스트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15]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에 전산 처리를 위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였다. 작성된 코퍼스 파일은 1889년도 12월, 1890년도 1월~12월, 1893년도 1월~10월의 기간의 각 달에 해당하는 23개의 파일과 앞 13개월의 내용을 종합한 파일 1개, 뒤 10개월의 내용을 종합한 파일 1개로 총 25개의 파일로 구성하였다. 편의상 앞 13개월의 내용을 초기, 뒤 10개월의 내용을 후기로 표기하였다. 각 월별 파일에는 날짜별 구분을 위하여 일기 원본의 날짜와 날씨를 그대로 두었으며, RANGE 프로그램을 통한 어휘 분석을 위하여 하나씩으로 합친 초기와 후기의 파일에는 날짜와 날씨 부분을 삭제하고 일기의 본문 텍스트만을 남겨놓았다.

일기의 국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1892년도 일기까지 제공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병렬 코퍼스 구축을 위한 자료는 초기 13개월의 국역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13개의 월별 파일로 구성하였다. 일기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1890년 1월의 일기 31편과 1893년 1월의 일기 17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영어 모국어 환경을 떠난 시기의 일기 중에서 1895년부터 1899년까지의 일기 중에서 네 편, 1900년부터 1905년의 일기 중에서 다섯 편의 일기를 선정하여 각 일기에서 발췌한 문장의 내용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 2. 연구 도구

574편에 걸친 일기 텍스트의 분석을 위하여 텍스트의 어휘 분석 프로그램인 RANGE와 텍스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Coh-Matri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2.1 어휘 수준 분석 도구

작성된 일기의 어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Nation의 RANGE 프로그램[16]을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텍스트 내에 사용된 어휘를 수준별로 분석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1000단어 수준의 어휘를 1수준으로, 그 다음 1000단어 수준의 어휘를 2수준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의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Academic Word List 570개 어휘의 비율 정보를 3수준으로 제공하였다[17]. 여기에서 검색되는 어휘의 수는 단어의 기본형으로서,

실제 검색되는 단어에는 그 단어의 파생어가 포함된다.

## 2.2 텍스트 구성요소 분석 도구

텍스트의 이독성 지수, 어휘의 다양성, 통사적 복잡성, 참조적 응집성, 의미적 응집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Coh-Metrix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치호 일기의 날짜별 텍스트 574편을 웹상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측정치는 전문기와 임인재[8]가 영어 교과서의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12개의 측정치 중에서 웹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가지 측정치(통사구조 내 문장성분 수)를 제외하고 어휘 다양성 부분에서 한 가지 측정치를 추가하여 총 12개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치들을 범주별로 보자면 기초 산출치, 단어빈도수, 읽기 난이도, 통사적 복잡성, 어휘 다양성, 참조적 응집성, 의미적 응집성의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IV. 연구 결과

영어 모국어 환경에서 작성된 윤치호의 영어 일기 중 초기 382편과 후기 192편에 대한 RANGE 프로그램을 통한 어휘 수준 분석 결과, Coh-Metrix 분석을 통한 텍스트 구성 요소 분석의 결과, 그리고 일기의 내용적 특성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어휘 수준 분석 결과

본 연구를 위하여 선택된 초기 382개의 일기를 하나의 파일로 구성한 후, 이 텍스트의 어휘 정보를 RAN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등장한 총 토큰 수는 33815개, 타입 수는 4820개로 14.25%의 타입-토큰 비율을 보였다. 이 중 1수준에 포함되는 토큰 수는 27116개로 80.19%를 차지하였고, 2수준에 포함되는 토큰 수는 2039개로 6.03%를 차지하였다. 3수준에 포함되는 토큰 수는 612개로 전체에서 1.81%를 차지하고 있다. 3수준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토큰 수는 4048개로

11.97%를 차지하였다. 초기 일기에 대한 단어 수준별 타입 및 토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초기 일기의 어휘수준 분석 결과

Word List	토큰 (%)	타입 (%)
One	27,116 (80.19)	1,738 (36.06)
Two	2,039 (6.03)	781 (16.20)
Three	612 (1.81)	310 (6.43)
Not in the list	4,048 (11.97)	1,991 (41.31)
Total	33,815	4,820

다음으로 후기 192개의 일기를 하나의 파일로 구성한 후, 이 텍스트의 어휘 정보를 RAN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등장한 총 토큰 수는 45844개, 타입 수는 6222개로 13.57%의 타입-토큰 비율을 보였다. 이 중 1수준에 포함되는 토큰 수는 36796개로 80.26%를 차지하였고, 2수준에 포함되는 토큰 수는 2648개로 5.78%를 차지하였다. 3수준에 포함되는 토큰 수는 729개로 전체에서 1.59%를 차지하고 있다. 3수준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토큰 수는 5671개로 12.37%를 차지하였다. 후기 일기에 대한 단어 수준별 타입 및 토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후기 일기의 어휘수준 분석 결과

Word List	토큰 (%)	타입 (%)
One	36,796 (80.26)	2,057 (33.06)
Two	2,648 (5.78)	1,003 (16.12)
Three	729 (1.59)	376 (6.04)
Not in the list	5,671 (12.37)	2,786 (44.78)
Total	45,844	6,222

타입-토큰 비율은 텍스트의 크기가 커질수록 반복되는 내용어나 기초 어휘가 많아지면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타입-토큰 비율은 전체 일기를 하나로 합쳐 놓은 텍스트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10%에 미치지 못하는 1수준 어휘의 타입-토큰 비율과는 달리 30%대의 2수준 어휘, 50%대의 3수준 어휘, 40%대의 기타 어휘의 타입-토큰 비율을 보면 2수준 이후의 어휘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휘 수준별 타입-토큰 비율의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두 기간의 어휘 수준별 타입-토큰 비율

Word List	초기	후기
One	6.41%	5.59%
Two	38.30%	37.88%
Three	50.65%	51.58%
Not in the list	49.18%	49.13%

두 기간에 실제로 등장한 어휘의 내용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각 기간별 2수준 어휘와 3수준 어휘 중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어휘 15개씩을 비교하여 보았다. 두 기간의 2, 3수준별 빈출 어휘의 구체적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두 기간의 수준별 빈출 어휘

	초기		후기	
	2수준	3수준	2수준	3수준
1	attended	final	bell	lecture
2	hall	resolution	supper	circumstances
3	pen	restrictions	audience	intelligent
4	supper	ignorant	berry	fund
5	examination	intelligent	preached	notwithstanding
6	dinner	circumstances	dinner	resolution
7	government	community	preacher	appreciate
8	weak	conduct	hotel	conference
9	prayer	convention	breakfast	debate
10	preacher	energy	hall	appreciation
11	preach	individual	prayer	convention
12	sympathy	lecture	sick	hence
13	afternoon	logic	education	occupied
14	tonight	advocate	rain	quotations
15	bell	commencement	tired	task

\* 밑줄: 초기와 후기에 중복되는 단어

2수준 어휘에서 두 기간에 중복된 어휘는 hall, supper, dinner, prayer, preacher의 다섯 개로 나타났다. 이 단어들 이 나타난 일기를 보면 그가 일상생활과 종교 생활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일기에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수준 어휘에서 중복되는 어휘는 intelligent, circumstances, convention, lecture의 네 개로 나타났다. 이 단어들 중 convention과 lecture가 나타난 일기를 통하여 그가 종교 행사에 꾸준히 참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수준에서 중복된 어휘에서 bell은 보통명사가 아니라 그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초기 3수준 어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final과 resolution은 학업에 대한 본인의 결심과 이의 실천 과정에 대한 내용의 일기에서 자주 등장한다. 1, 2, 3수준 이외의 단어로 빈출되는 어휘에는 지명과 종교 활동 관

련 어휘가 많아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2. 텍스트 구성 요소 분석 결과

기초 산출치, 단어빈도수, 읽기 난이도, 통사적 복잡성, 어휘 다양성, 참조적 응집성, 의미적 응집성의 일곱 가지 구성 요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Coh-Metrix를 사용하였다. RANGE 프로그램에서는 시기별 텍스트를 모두 모아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면, Coh-Metrix에서는 574편의 각 날짜별 일기의 측정치를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초기 일기와 후기 일기의 코메트릭스 측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6]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 6. 초기 일기와 후기 일기의 주요 코메트릭스 측정치 평균(표준편차)

측정치	초기	후기	t값	p값
기초 산출치 문단수*	2.45 (2.76)	6.42 (5.71)	-9.112	.000
단어수*	88.74 (132.33)	240.76 (188.51)	-10.003	.000
문장수*	6.89 (8.17)	18.70 (12.95)	-11.80	.000
평균문장길이*	10.10 (5.58)	12.79 (3.27)	-7.244	.000
이독성 FRE*	67.33 (21.29)	74.41 (8.22)	-5.707	.000
FKGL	6.46 (3.52)	6.06 (1.78)	1.813	.070
통사적 복잡성 본동사앞단어수*	1.84 (1.88)	2.80 (1.23)	-7.358	.000
명사구 밀도*	357.26 (124.47)	384.24 (34.43)	-3.946	.000
어휘 다양성 타입-토큰 비율 (내용어)*	93.19 (8.12)	86.66 (6.41)	10.496	.000
타입-토큰 비율 (모든 단어)*	81.49 (5.26)	65.26 (9.42)	15.470	.000
단어빈도수 단어빈도수*	2.17 (0.34)	2.25 (0.15)	-3.673	.000
참조적 응집성 논항반복 비율*	0.18 (0.24)	0.24 (0.15)	-3.491	.001
의미적 응집성 LSA 코사인값	0.08 (0.09)	0.09 (0.05)	-1.237	.217

\* P < 0.05

2.1 기초 산출치

우선 기초 산출치의 결과를 보면 후기 일기가 초기 일기에 비하여 문단 수( $t=-9.112, p=0.000$ ), 단어 수( $t=-10.003, p=0.000$ ), 문장 수( $t=-11.80, p=0.000$ ), 평균 문장 길이( $t=-7.244, p=0.000$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4년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꾸준히 일기를 쓰며 평균 단어수가 88.74개에서 240.76개로 약 170% 증가하였고, 평균 문장 길이는 10.10 단어에서 12.79 단어로 약 26%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일기에는 내용을 짧게 작성하여 단어수가 100단어 미만의 편수가 73%를 넘고 있으나, 후기 일기에서는 100단어 이상의 편수가 86%를 넘고 있어 일기의 분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와 후기의 단어수별 일기 편수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두 기간의 단어수별 일기 편수(비율)

Word List	초기	후기
10단어 미만	80 (20.9)	0 (0.0)
10단어~99단어	202 (52.9)	26 (13.5)
100단어~499단어	90 (23.6)	152 (79.2)
500단어 이상	10 (2.6)	14 (7.3)
계	382	192

2.2 이독성

이독성을 나타내는 FRE<sup>2</sup> 지수는 후기 일기가 74.41로 초기 일기의 67.33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기의 일기가 더욱 이독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FKGL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813, p=0.070$ ). 원래 이독성 지수인 FRE와 FKGL은 단어 길이(음절 수)와 문장 길이에 주로 의존하여 계산되므로 긴 단어가 많이 포함된 지문일수록 FRE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기 일기에 상대적으로 긴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추

2 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문서의 가독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수로 공식은 아래와 같다. 0~100의 수치로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가독성이 높은 지문으로 여긴다. 0~30은 대학 졸업자에게, 60~70은 13~15세의 학생에게, 90~100은 11세의 학생에게 쉽게 이해될 수준으로 판단한다. Time지는 평균 52, 6학년생의 작문속도는 60~70정도를 보인다.

공식:  $206.835 - 1.015 \times (\text{단어 수}/\text{문장 수}) - 846 \times (\text{음절 수}/\text{단어 수})$

론할 수 있다.

2.3 통사적 복잡성

통사적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수 중 본동사 앞 단어 수는 후기의 일기가 평균 2.80으로 초기의 1.84보다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t=-7.358, p=0.000$ ). 명사구 밀도 점수는 분석 대상 지문의 명사구 수를 1000단어의 비율로 수치화 한 것으로, 명사구 밀도가 높을수록 통사적으로 더욱 복잡한 지문일 가능성이 높다. 명사구 밀도 점수도 후기의 일기가(평균 384.24) 초기의 일기(평균 357.26)보다 다소 높은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3.946, p=0.000$ ).

2.4 어휘 다양성

어휘 다양성은 내용에 대한 타입-토큰 비율과 전체 단어에 대한 타입-토큰 비율을 초기 일기와 후기 일기의 값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내용의 타입-토큰 비율은 초기 일기 93.10%에서 후기 일기 86.66%로 어휘의 다양성이 다소 감소한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t=10.496, p=0.000$ ), 전체 어휘에 대한 타입-토큰 비율도 초기 일기 81.49%에서 후기 일기 65.2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15.470, p=0.000$ ). 이는 초기에 단어수가 적은 일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것이 그 이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타입-토큰 비율은 윤치호 일기 전체의 타입-토큰 비율 35%[3]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후기 일기의 65.25%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1과 영어2 교과서의 타입 토큰 비율과 [18] 유사한 수준이다.

단어수가 너무 적은 일기와 너무 많은 일기가 타입-토큰 비율에 주는 영향을 배제하고 비교해 보기 위하여 두 기간의 일기 중 100단어 이상 500단어 미만의 일기만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초기 90편과 후기 152편의 타입-토큰 비율을 비교한 결과 내용어( $t=-1.644, p=0.102$ )와 모든 단어( $t=-0.966, p=0.33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단어 이상 500단어 미만 일기의 타입-토큰 비율의 상세 내용은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100~499 단어 일기의 타입-토큰 비율

측정치	초기	후기	t값	p값
어휘 다양성				
타입-토큰 비율 (내용어)	84.84 (6.40)	86.16 (5.25)	-1.644	.102
타입-토큰 비율 (모든 단어)	63.15 (7.00)	64.00 (6.00)	-0.966	.335

### 2.5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는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일반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이 발생하는 빈도를 측정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익숙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읽기 난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어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초기 일기의 단어 빈도수는 2.17이었고 후기 일기는 2.25로, 원어민 화자에게 익숙한 단어가 후기 일기에 약간 더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t=-3.673, p=0.000$ ).

### 2.6 응집성

텍스트의 응집성 분석에는 논항 반복 비율과 LSA 코사인값을 사용하였다. 논항 반복 비율은 텍스트의 참조적 응집성을 측정하며 LSA 코사인값은 텍스트의 의미적 응집성을 측정하는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논항 반복 비율은 인접 문장 사이에서 명사와 대명사가 반복되는 비율을 측정한 값으로, 초기 일기(0.18)보다 후기 일기(0.24)에서 더 높아서 후기 일기가 더 참조적 응집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3.491, p=0.001$ ). 그러나 의미적 응집성은 초기 일기와 후기 일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1.237, p=0.217$ ).

## 3. 일기의 문장 분석

57편의 일기 문장 분석에서 드러난 언어 형식의 특성과 내용적 특성, 그리고 영어 학습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서신 교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 언어 형식의 특성

영어 모국어 환경에서 작성한 일기 중 초기에 해당하는 1890년 1월의 일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1893년 1월의 일기에는 언어 형식상의 변화가 잘 드러난다. 초기에 작성한 일기에는 주어나 문장 앞부분의 명사구가 과도

하게 긴 부분이 종종 나타났으나 후기의 일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문장이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장의 예시는 각각 [표 9]에 국역과 함께 제시하였다.

1890년 1월 1일, 1월 5일, 1월 19일의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의 주어 부분으로써 문장의 앞부분에 길게 나타나 있다. 1월 20일의 일기에서 밑줄 친 문장을 보면, 각각의 문장으로 분리해서 기술하면 더욱 자연스러울 수 있는 문장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장황하게 표현하여 우리말 일기를 영어로 옮긴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1893년의 일기에서는 밑줄 친 1월 7일, 15일, 19일의 예와 같이 긴 명사구를 자연스럽게 뒤쪽에 배치하였다. 또한 1월 7일의 두 번째 문장과 1월 8일의 문장은 짧고 간략하게 문장을 연결하여 1890년의 문장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읽혀진다.

표 9. 1890년과 1893년의 일기 문장 예시

1890년과 1893년의 일기 중 발췌	
1890년 원문	(1/1)Everything in his rooms and on his table is scrupulously neat. (1/5)Those who think they have means and men hardly enough for the domestic missions reminds me of the disciples of old. (1/5)Should the Church with such means at its command doubt of its victory? (1/19)Her stories of the little girls under her care are delightful. (1/20)But, finding it impossible to sit up to the required bed hour, I, with pharisaical adherence to the letter of a law, slept on the chair for hours until 11, and then went to bed.
1890년 국역	(1/1)그의 방과 탁자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빈틈없이 깨끗하다. (1/5)국내 선교에도 재정적, 인적 자원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옛 제자를 생각하게 한다. (1/5)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들을 가진 교회가 승리를 의심해야 하는가? (1/19)그녀가 보살피고 있는 어린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즐거웠다. (1/20)그러나 규정된 취침 시간까지 앉아있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리새인처럼 규정의 문자에 매달려 11시까지 의자에 앉아 잠을 잔 후 시간이 되어 침대로 갔었다.
1893년 원문	(1/7)Yet, how hard it is for me to come away from her sunny presence when I once get into it! (1/7)Two little girls of the same parents. They grow up together under equal advantages. Both are fair and good. (1/8)1. "Hopping-John"-: this is the name Mrs. Berry gives to peas cooked with rice. *(1/15)3. No doubt there is a great deal of silly sentimentalism and superficial piety in these movement. *(1/19)The authorities saw it necessary to suspend the school until Monday.



1893년 국역	(1/7)그러나 햇빛처럼 빛나는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1/7)같은 부모를 가진 두 소녀들. 그들은 동일한 이점을 누리며 자란다. 둘 다 매우 착하다. (1/8) "통통거리는 존" -: 이것은 Berry 부인이 쌀밥에 들어가 있는 콩에 붙인 이름이다. (1/15)이러한 흐름속에는 어리석은 감상주의와 피상적인 독실함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1/19)학교의 운영진은 월요일까지 휴교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

이후의 일기에서 내용에 알맞은 언어형식을 적절하게 사용한 문장들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①번 예문의 내용은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참석했던 여행 중에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관찰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본인의 평가에 대한 정확한 영작과, 외국인으로서 하기 힘든 절묘한 강조의 표현까지 나타난다.

① 1896 8월 13일 일기 중 발췌	
원문	The "Orthodox" religion, which <u>multiplies cathedrals upon cathedrals</u> , is deemed to be powerless for purifying the social morals. <u>중략</u> Religion in Russia seems to be <u>one of the political forces—and scarcely anything more.</u>
국역	러시아 정교회는 성당은 계속해서 짓고 있지만 사회 윤리를 정화하는 데에는 무기력해 보인다... 중략... 러시아의 종교는 정치적 세력의 하나일 뿐,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

②번의 예문은 주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인지 단순하지 않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한 개의 문장에 3개의 종속절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를 사용하여, 마치 뉴스나 신문의 보도내용처럼 복잡한 내용이지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1898년 10월 31일 일기 중 발췌	
원문	This morning the Government Gazette announced that the Six Articles which Assembly of all Castes (官民共同會) had presented to the Cabinet begging for the Imperial sanction were so far approved by His Majesty that he ordered the Government to attend to them (令政府蒞處).
국역	오늘 아침 관보는 관민공동회가 황실의 재가를 청원하며 내각에 제시한 여섯 개의 조항을 전하께서 승인하시어 정부에 그것들을 지키도록 명하셨다고 발표했다.

예문 ③는 원산군수 시절에 보부상들과의 갈등과 자신이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있

다. 어렵지 않은 수준의 어휘사용과 단순한 반복구조를 사용하여 길이는 길지만 쉽게 이해되는 문장이다.

③ 1900년 12월 14일 일기 중 발췌	
원문	I had no right to prohibit them from coming to Wonsan. Yet I did everything that I could legally to check their unlawful practices. For instance, I would not allow them to <u>sell their certificates of membership(帖狀) to anybody who was unwilling to join the association, or to sell them at the street corners or the market places; or to collect taxes from villagers coming to the fairs, or to exercise any judicial functions.</u>
국역	그들이 원산으로 오는 것을 막을 권한은 내게 없다. 하지만 그들이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어 '접상' 을 원치않는 자에게 판매한다든지, 그것을 골목 어귀나 시장통에서 판매한다든지, 장에 오는 주민들에게서 세금을 걷는다든지, 어떤 사법적 행위를 하려는 것 등이다.

④번의 예문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작성한 일기로서, 'not A but B'의 문법적 요소를 잘 활용하여 표현되어 있다.

④ 1905년 11월 18일 일기 중 발췌	
원문	Only the trouble is that the woes are not finished by a great deal yet. I hope—a fool that I am to hope still—that Japan will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Koreans, <u>not merely in high-sounding declarations and wearisome promises but in some visible and tangible acts and examples.</u>
국역	문제는 아직도 근심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바보같이 일본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바란다; 호언장담하는 선언이나 지리한 약속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 행동과 본보기로.

### 3.2 내용적 특성

그는 1889년부터 미국에서 신학과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초기에는 예문 ⑤과 같이 종교와 관련된 글이 나타난 일기에서 특히 높은 어휘력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어로 된 성경공부, 교회 목사의 설교, 선교사들과의 대화와 서신 교환을 통하여 습득한 어휘로 보인다.

⑤ 1890년 1월 26일 일기 중 발췌	
원문	For, what class of men—beside missionaries—show so much interest in the welfare of the heathen? Greedy merchants or cold philosophers or cunning politicians or conceited scientists or profane infidels?
국역 <sup>3)</sup>	선교사 말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방의 복지에 그토록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욕심 많은 상인이나 차가운 철학자들, 교활한 정치인들, 우물대는 과학자들, 또는 세속적인 비기독교인들인가?

하지만 예문 ⑥과 같이 일상적인 내용을 기록한 일기에서는 후기의 일기에서도 어려운 어휘가 많이 등장하기보다는 내용에 적절하도록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⑥ 1899년 12월 31일 일기 중 발췌	
원문	By some mysterious series of accidents and coincidences I have, however, spent the last 10 months of the closing year of the 19th century in Wonsan.
국역	하지만 일련의 이상한 사건과 우연의 일치로 인하여 19세기 마지막 해의 열 달을 원산에서 보내게 되었다.

⑦번의 예문은 1895년 이탈리아 공작의 방면에 대하여 속소마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정도의 아쉬움과 부끄러움의 표현을 매우 적절히 한 것으로 보인다.

⑦ 1895 7월 22일 일기 중 발췌	
원문	I was so humiliated and mortified that I had no "face" to look at the Duke and his party <sup>4</sup> .
국역	나는 너무나 창피하고 분통하여 공작과 그 일행을 볼 면목이 없었다.

⑧번의 예문은 그 내용 자체로서도 글의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정확히 영어로 표현한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가정법을 잘 활용하여 상위 언어 학습자의 특성을 보여준다[19].

⑧ 1896 8월 13일 일기 중 발췌	
원문	By the way, never tell a man that you can read his secrets. For if you fail reading his mind correctly, as you may ten to one, you make yourself ridiculous. If you really know his secrets, it makes him uneasy and touchy with you.
국역	그런데, 남에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 그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웃음거리만 되고, 그의 비밀을 알아낸다면 그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게 될 것이다.

3 윤치호 일기 영문에 대한 국역은 1892년도 일기 까지는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 따르며, 이후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제시하였다.

4 밑줄 친 부분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는 *any party*라고 되어 있으나 내용상 'and his party'가 맞는 것으로 보임. 텍스트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임.

⑨번의 예문은 윤치호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분제도를 'Yangbanarchy'로 표현한 것은 한글 어간에 영어 어미를 붙여 어휘를 만들어낸 것으로, 영어의 다양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윤치호가 외국인으로서 이러한 어휘 활용을 자유롭게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⑨ 1901년 1월 1일 일기 중 발췌	
원문	Being thoroughly wedded to the ideals and principles of the corrupt "Yangbanarchy," the old gentleman regards strict integrity as a sign of mental disorder... 중략 yet he would consider it a downright foolishness, if not a sin, to let go any gain, however irregular in its moral aspects, that maybe covered by the convenient but ungodly formula: "If I don't take it others will" or "Honesty doesn't pay in this world (Korea) of dishonesty."
국역	부패한 "반상제" 의 이상과 원칙에 완전히 집착하는 나의 부친은 엄정한 청렴을 정신병으로 여긴다... 중략... 하지만 그는 (도덕적 측면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이익을 놓치는 것도 (죄까지는 아닐지라도) 완전한 어리석음으로 간주하곤 하는데, 이는 다음의 편리하지만 타락한 공식으로 답인다: "내가 갖지 않으면 남이 가진다" 혹은 "이 부정직한 세계(조선)에서, 정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문 ⑩은 함흥에서 발생한 민중 봉기와 관련 그 원인이 된 관리에 대한 평을 적었다. 이 부분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의 효과를 높였다. 밑줄 친 부분의 'outheroed'는 영어 원어인 화자는 잘못된 어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국인의 작문이라는 점과 앞의 문장에서 사용된 'hero'의 문맥을 고려하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가능성도 있다.

⑩ 1902년 3월 31일 일기 중 발췌	
원문	All his schemes are like the intricate carvings of a Japanese artist. He prides himself on his ability of squeezing money, either of the State or of the people, without exposing himself to detection. Koreans call him a hero(!!!) because he is so dexterous in cheating and swindling. This time, however, <u>our hero has apparently outheroed himself.</u>
국역	그의 모든 책략은 일본인 조각가의 교묘한 작품과 같다. 그는 탄로나지 않고 나랏돈이나 백성들의 돈을 짜내는 능력을 자랑스레 여긴다. 그의 부정과 사기가 너무도 교묘하여 조선인들은 그를 영웅시한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의 영웅은 확실히 도가 지나쳤다.

⑪번 예문은 을사조약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일기 중에서 시 미국의 한 인물을 인용한 표현이 나타난다. 미국의

영어 원어민 화자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좋은 적절한 표현으로 간주될 것이다.

㉑ 1905년 11월 17일 일기 중 발췌	
원문	He who does it will earn a name as detested by his countrymen as the name of Benedict Arnold is by the Americans.
국역	그것을 하는 사람은 미국인들이 Benedict Arnold <sup>5</sup> 의 이름을 혐오하듯 국민의 혐오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⑤~⑪번의 예시 문장들은 각각 문맥적으로 혹은 문장 구조나 표현법 측면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예시들이 윤치호 일기의 대표적인 것들은 아니나 그 나름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

### 3.3 학습에 대한 상위인지적 사고 및 서신 교환

당시에는 흔치 않았을 외국 생활과 영어를 접하게 된 기회에 더하여 윤치호 자신의 꾸준한 자기계발 노력과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영어능력의 향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환경에 있던 시기는 1888년 11월부터 1893년 10월까지 미국 유학 5년간이었으며 특히 이 시기동안 영어를 습득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꾸준한 자기계발 노력과 학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있었음을 일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도 관찰할 수 있다. ⑫번의 일기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자기관리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그는 선교 및 학습의 직접목적 이외에도 일본, 중국, 미국의 사람들과 영어로 교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두로 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서신교환의 내용도 그의 일기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초기의 13개월 동안의 일기에 등장하는 외국인과의 편지는 받은 편지 45통과 보낸 편지 47통을 합쳐 총 92통이다. 13개월의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3.5통의 편지를 받았고, 3.6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 중 영어로 주고받은 것이 확실치 않은 중국인이

나 일본인과 교환한 편지 11통을 제외해도 최소한 1년간 81통의 서신 교환이 영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읽는 사람을 가정하지 않는 일기의 글 보다는 읽는 사람이 분명한 편지의 글에 더욱 정확성을 기하여 글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서신 교환도 윤치호의 영어 글쓰기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편지의 내용까지는 일기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일기에 나타난 월별 서신 교환의 편수 정보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㉒ 1890 1월 20일 일기 중 발췌	
원문	To illustrate how I sometimes sacrifice the spirit of a "Final Resolution" to its letter: Sometime ago I made a "Final Resolution" that I should go to bed at 11 p.m. and no earlier for a week or two. This brought me headaches and weariness so as to interrupt my studies for whose sake I made this "Final Resolution". But, finding it impossible to sit up to the required bed hour, I, with pharisaical adherence to the letter of a law, slept on the chair for hours until 11, and then went to bed. This is an abominable way of keeping a rule or law whether it be Divine or human. It is far better to break a law altogether than to sacrifice its spirit to its letter.
국역	내가 '마지막 결심' 의 정신을 그 글자에 어떻게 희생시켰는지 이야기해 보자. 얼마 전 나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결심에 넣었다. 아마 한 주일 또는 두 주일 전이었다. 이 결심은 나에게 두통과 근심을 주어 이 결심을 한 나의 공부를 방해했다. 그러나 규정된 취침 시간까지 앉아있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리새인처럼 규정의 문자에 매달려 11시까지 의자에 앉아 잠을 잔 후 시간이 되어 침대로 갔었다. 이것은 신이 만든 법이나 규칙이거나 인간이 만든 법과 규칙이거나 간에 법과 규칙을 지키는 잔인무도한 방법이다. 문자에 정신을 희생시키기보다 법 자체를 깨는 것이 낫다.

표 10. 초기 일기에 나타난 서신 교환 현황

월	받은 편지	보낸 편지
1889 12월	2	5
1890 1월	5	4
2월	8	4
3월	6	2
4월	0	4
5월	5	4
6월	1	4
7월	3	4
8월	7	3
9월	4	5
10월	3	2
11월	1	3
12월	0	3
계	45	47

5 Benedict Arnold(1741. 1. 14 - 1801. 6. 14): 미국 독립전쟁중 미군 장교였다가 영국군으로 전향함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 모국어 환경에서 작성된 윤치호의 일기를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초기의 일기 382편에 사용된 총 토큰 수는 33815개, 타입 수는 4820개로 14.25%의 타입-토큰 비율을 보였고 후기 192개의 사용된 총 토큰 수는 45844개, 타입 수는 6222개로 13.57%의 타입-토큰 비율을 보였다.

기초 산출치 분석의 결과 단어 수는 평균 88.74에서 240.76으로( $t=-10.003$ ), 평균 문장 길이는 10.10에서 12.79로( $t=-7.244$ ) 증가하였다. 통사적 복잡성에서는 본동사 앞 단어수가 1.84에서 2.80으로( $t=-7.358$ ) 증가하였고 명사구 밀도 점수는 357.26에서 384.24로( $t=-3.946$ ) 증가하여 통사적으로 좀더 복잡해 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어 빈도수는 2.17에서 2.25로( $t=-3.673$ ) 증가하여 후기 일기에 익숙한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성에서는 참조적 응집성은 0.18에서 0.24로( $t=-3.491$ ) 증가하였으나 의미적 응집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난이도인 FRE는 67.33에서 74.41로( $t=1.813$ ) 초기의 일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 다양성은 초기 일기가 더 높지만 100단어 이상의 일기에서는 초기와 후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7편의 일기 내용의 분석 결과 영어 모국어 환경에서 초기에 작성한 일기에 비하여 후기에 작성한 일기에서 언어 형식의 사용이 개선된 점이 보였다. 귀국 후에 작성한 일기에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절한 언어 형식을 사용한 문장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 생활, 일상생활, 국내 정치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을 영어로 잘 전달한 문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영어 학습에 대한 상위인지적 사고의 내용이 드러나는 내용은 초기의 일기에 자주 등장한다.

윤치호가 외국인으로서 높은 글쓰기 능력을 성취한 비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는 비교적 젊은 시기에 영어를 처음 접하였으며 24세부터 5년간 미국에서 유학하였다. 따라서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환경

적 요소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유학생들이 언어습득이나 학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듯 그의 언어습득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긴 기간 외국생활 및 유학생생활과 그 이후까지 자신의 학습 및 생활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꾸준히 일기로 기록한 것이다. 즉, 영어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학습에 대한 상위인지적 사고를 수반한 실제적 글쓰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영어 글쓰기 능력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제언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는 영어를 습득하기 위한 노출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학교 영어 수업시간도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 특히 자연스러운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어 공교육을 비판하고 불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에 도달한 사례와 방법을 찾아내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윤치호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외국인을 통해서였고, 통역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으며, 약 4년간 미국 유학을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학교 교육 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하여 현재의 영어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사점으로는 동기 부여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만약에 영어로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쓸 필요성을 느낀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글쓰기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꾸준히 영어로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교환하고, 이를 초·중등학교 재학기간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우리의 영어 글쓰기 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내용을 기록하는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교육 정보 시스템과 연동시키는 영어 글쓰기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 콘텐츠

의 보완을 들 수 있다. 윤치호는 대학교 수강에 필요한 영어로 된 교재 이외에도 종교, 역사, 문학 분야에서 다양한 독서를 했다. 또한 대학교 수업시간 이외에도 종교적, 학술적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독서의 내용과 모임의 내용이 모두 윤치호에게는 영어 학습의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최근의 학습자들이 책을 보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하는 것에 더 익숙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습자들이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분량의 정제된 자료를 검색이 용이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병렬 코퍼스를 활용할 수 있다. 원어문의 글쓰기 자료와 이를 우리말로 해석한 자료, 반대로 우리말 글쓰기 자료와 이를 자연스럽게 영어로 표현한 자료를 통합하여 병렬 코퍼스를 구성하면 영어 표현 검색 시스템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영어교육 방법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윤치호가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하여 꾸준히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한 것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더욱 발달된 모바일 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모든 교과에 대한 학습의 방법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영어 공교육이 학교 수업 중심의 콘텐츠 개발 및 방법론 위주였다면, 앞으로의 영어 공교육은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풍부한 콘텐츠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평소에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학습 활동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학습 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이 영어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읽기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다독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팜송 및 챗트를 통하여 동기를 부여해 주며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 토론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의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고, 교사는 면대면 수업에서

학생의 발달단계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학습방향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도움으로 현실화될 것이며, 지금도 공개되고 있는 수많은 영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그러한 변화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1] 김명숙, “링구아 프랑카로서의 영어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영어학연구, 제10호, pp.71-90, 2000.
- [2]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09.
- [3] 박정례, *좌옹 윤치호의 영어일기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 김정렬, 이동주, 전희철, *코퍼스 언어학과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2012.
- [5] S. Johnsson, “On computer corpora in contrastive linguistics,” In W. R. Cooper(ed), Compare or contrast? Current issues in cross-language research, Tampere English Studies 6, 2008.
- [6] T. P. Krzeszowski, *Contrasting languages: The Scope of Contrastive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yuter, 1990.
- [7] E. Tognini-Bonelli, “Functionally complete units of meaning across English and Italian: Towards a corpus-driven approach,” In B. Altenberg & S. Granger (ed.), *Lexis in Contrast. Corpus-based Approach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2.
- [8] 전문기, 임인재, “코메트릭스(Coh-Metrix)를 이용한 중학교 1학년 개정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비교 분석”, 영어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pp.265-292, 2009.

- [9] <http://www.cohmetrix.com>
- [10] 김정렬, 양지윤, “Coh-Metrix를 통한 초·중등 영어교과서 연계성 분석”, 영어교육, 제67권, 제2호, pp.319-341, 2012.
- [11] 조아진, 영어일기쓰기를 통한 어휘학습 효과와 정의적 태도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12] 오지현, 그림일기를 활용한 영어 쓰기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13] 권나나, 일기 유형이 초등학생의 영어 쓰기 능력과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4] D. H. Nam, “A Corpus-Based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Composi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25, No.4, pp.67-85, 2013.
- [15] <http://db.history.go.kr>
- [16] <http://www.victoria.ac.nz/lals/about/staff/paul-nation>
- [17] A. Coxhead, “A new academic word list,” TESOL Quarterly, Vol.34, No.2, pp.213-238, 2000.
- [18] 이승환, “코메트릭스(Coh-Metrix)를 이용한 고등학교 영어1과 영어2 교과서 문어 텍스트의 코퍼스 언어학적 난이도 분석”, 외국어교육연구, 제27권, 제2호, pp.131-148, 2013.
- [19] 김경훈, “대학생의 영어 가정법 습득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9호, pp.231-239, 2007.

저 자 소 개

서민원(Min-Won Seo)

정회원



- 2004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영어교육)
- 2005년 3월 ~ 현재 : 중등영어교사로 재직
- 2009년 8월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영어교육)

<관심분야> : 영어교육, 코퍼스, 병렬코퍼스, 스마트 교육